일 주 문



월정사 제51기 출가학교

정념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12월 9일까지 제51기 출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51기 출가학교는 2018년 1월 3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린다.



동국대 석림동문회 정기총회

성우 동국대 석림동문회장 스님은 12월 7일 서울 동국대 정각원에서 서울 비구니 수행관 혜광원 신축 등을 안건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중앙승가대 '송년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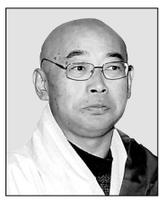
범해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스님은 12월 14일 서울 메이필드호텔 볼룸1층에서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송년의 밤'을 개최한다.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의밤

김용표 동국대 불교학과 총동문회장은 12월 19일 서울 충무로 대림정에서 2017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의 밤을 개최한다.

불교활동가 지원금 전달식 개최



설법연구원(원장 동출 · 사진)은 12월 11일 오후 5시 탄허강숙 사무실에서 제14회 불교활동가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며 부처님 가르침처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불교활동가 및 단체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다.

이번 14회 불교활동가 지원 대상자로는 길상사 아시아밝음 공동체 사미타 스님,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 홍성란 씨, 김형률추모사업회 등 활동가 2명과 단체 1곳이 선정됐다. **박진형 기자**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임원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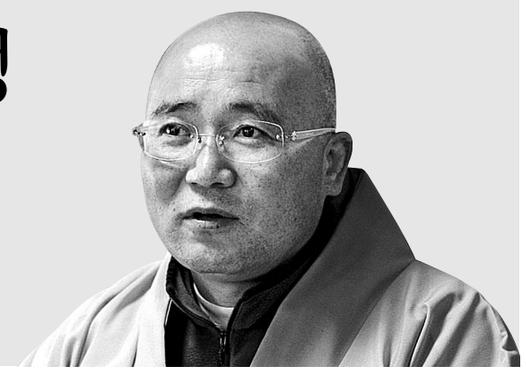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이사장 산수)는 11월 23일 옥천명가 회의실에서 2017년 하반기 임시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는 이사장 산수 스님, 회장 회암 스님, 수석부회장 정일 스님, 상임부회장 혜상 스님 등 소속 임원 30여명이 참석해 연합회 정관을 심의한 후 제·개정하고 회장단 임명 및 연합회 발전을 위한 토론을 이어갔다. **노덕현 기자**

"제주 불교 인재양성 원동력으로"

Interview

성원 스님(신제주불교대학 보리왓 원장)



보리왓불교대학 11월 25일 개원

제주 불자, 인재 양성 계획

"어린이 포교도 지속 노력할 것"

"제주도 불자들을 위한 불교대학입니다. 제주 각 사찰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함께 앞장서는 주축이 될 것입니다."

신심과 교학으로 무장한 불자 인재 양성소를 발원하며 보리왓불교대학이 제주도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제주시 연동에 약천사 신제주 불교대학 보리왓(학장 성원, 이하 보리왓불교대학)이 11월 25일 보리왓 법당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개원법회에는 불암사 회주 일면 스님, 약천사 주지 덕조 스님, 오영훈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제주불교도량 개원을 축하했다.

학장 성원 스님은 "신제주 지역에 불교대학을 개원 하는 일은 제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요, 우리 지역 사회에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소명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보리왓 법당에서는 교육과 수행에 매진하고, 사람들에게 가정과 우리 사회를 위해 노력 헌신하도록 일깨워 갈 것이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보리왓불교대학은 신제주권 내 유일한 불교대학이다. 신제주권은 개발지역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가 많고 관공서가 집중화 되어 있는 중요 지역이다. 성원 스님은 먼저 불교대학 운영에 교학을 중심으로 하되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겠단 다짐이다. 신심을 강조해 신행으로 이어 지도록 노력을 기울여 균형잡힌 인재상을 목표로 둔다. 또 종단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업을 주목하고 제주불교와 연결해 종단 흐름에 발 맞춘다는 계획이다. 섬이라는 지역 특성상 종단 흐름과 단절되기 쉬워 이를 미리 예방하고 흐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다.

성원 스님은 "종단에서 좋은 프로그램 및 사업을 많이 펼친다"며 "흐름을 연결해 제주불자들이 혜택을 입고 성장에 발맞추기 위해 귀를 기울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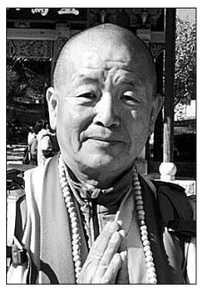
성원 스님은 2008년 제주도 약천사 주지로 활동 당시 어린이 포교 원력으로 '약천사 리틀붓다 어린이합창단'을 창단했다. 이후 합창단을 통해 어린이법회를 운영해 제주도 어린이청소년 포교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에 대한 공로로 2017년 포교대상 원력상을 12월 6일 수상한다.

성원 스님은 마지막으로 "포교원이 아니라 보리왓불교대학으로 개원한 것은 교육에 더 힘을 쏟기 위해서다"며 "어느 누구나 와서 강의를 듣고 각자 수행하는 사찰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해내는 인재들로 성장하길 바란다. 불자인재 양성 요람으로 제주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사 및 특강 법사로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법사 스님들이 함께 한다. 보리왓불교대학은 현재 입학 지원을 받고 있으며 개학은 내년 3월이다. 064)746-0108 **하성미 기자**

"금강산 지나 백두산에도 태극기를"

재원 스님, 통일기원 국토 대장정 만행 회향



"만행 기간 동안 가지고 다닌 태극기를 통일전망대에 계신 부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금강산을 넘어 백두산에도 갈 수 있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발원했습니다."

지난 11월 1일 통일을 기원하는 국토대장정 만행 길에 올랐던 통도사 前 주지 재원 스님〈사진〉이 원만 회향했다. 11월 28일 통도사에 돌아온 재원 스님은 예정보다 5일 빠른 11월 25일 강원도 통일전망대에 도착해 부처님께 만행을 마무리하며 '통일'을 간절히 발원했다고 전했다.

재원 스님은 매일 새벽 5시 전에 기상해 〈초발심자경문〉에 있는 발심수행장을 독송하며 부처님께 마음을 다잡았다. 쉬운 길은 아니었다. 차가운 바람에 심한 감기까지 걸려 병원에서는 만행을 만류했지만 멈출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리가 퉁퉁 붓기도 하고 감기가 심하게 걸려 폐렴이 우려된다며 의사들은 만행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약을 먹고 버티며 걸어갔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거지로 오해 받아 멸시를 당하기도 했지요. 그 과정에서 '만행은 만 가지 고행과 만 가지 덕행을 배우고, 익히고, 실행하는 것을 만행이라한다'는 걸 깊이 알았습니다."

만행을 마친 재원 스님은 앞으로 통일을 위한 발원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붓다 가르침 입각해 집필"

2회 법계문학상 대상 이갑숙 '꺼지기 쉬운 빛'



청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불교계 장편문학 확대를 위해 제정한 법계문학상 제2회 대상 수상작으로 이갑숙 씨〈사진〉의 장편 소설 '꺼지기 쉬운 빛'이 선정됐다. 가작은 선정되지 않았다.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작품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계문학상 운영위원회(위원장 남지심)는 11월 27일 "공모를 통해 20여 작품이 응모됐으며,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갑숙 씨의 장편 소설 '꺼지기 쉬운 빛'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가작은 뽑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수상작인 '꺼지기 쉬운 빛'은 우리의 본래면목인 불성을 찾아가는, 이 시대를 살다간 평범한 한 삶의 서사를 그의 딸인 화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얘기다.

수상 소감으로 이 씨는 "행정고시 합격 후 30여 년 공직에 몸담았다. 껍데기를 덮어쓴 감정의 찌꺼기 때문에 허기와 갈증이 오는 시기였다"며 "퇴직 후 '나는 누구인가'란 질문으로 5년간 글쓰기에 매진했다. 해답은 붓다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었다. 법계문학상이 내게 불교로 계속 글을 써 내려갈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가져다줬다.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불교 관련 글을 쓰는데 더욱 정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는 "'꺼지기 쉬운 빛'의 궁극은 뭇 생명을 연결하고 접속하는 사랑과 자비"라고 덧붙였다. **박진형 기자**

연등회보존위, 美 전통등 강습회



연등회보존위는 11월 18~20일 포틀랜드박물관과 LA달마사에서 전통등 강습회를 열고, 미국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했다. 이 자리는 지난해 송광사 오불도를 반환해온 포틀랜드 박물관과의 인연을 굳건히 하고, 교포들에게 전통등 문화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18일 포틀랜드박물관서 진행된 강습회에는 오불도를 반환한 로버트 마티엘리(92) 부부와 중고등학생 등 100여 대중이 참가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군종교구 군승의날 봉행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11월 30일 서울 호국원광사에서 제49주년 군승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군승의날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을 비롯한 300여 군포교 관계자가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올해의 군승상 시상 등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종도 연수교육



한국대승불교조계종(총무원장 취운)은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울산 보광정사 연수원에서 종도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종도교육에는 30여명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취운 스님은 "연수교육을 통해 부처님의 자각각타 원만행으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실현을 위해 종단이 지향하고 있는 가정불교, 생활불교, 실천 불교를 정착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교육에서는 총무원장 취운 스님의 종헌강해를 시작으로 경전연구 및 토의, 야단법석, 특강, 경전토론 등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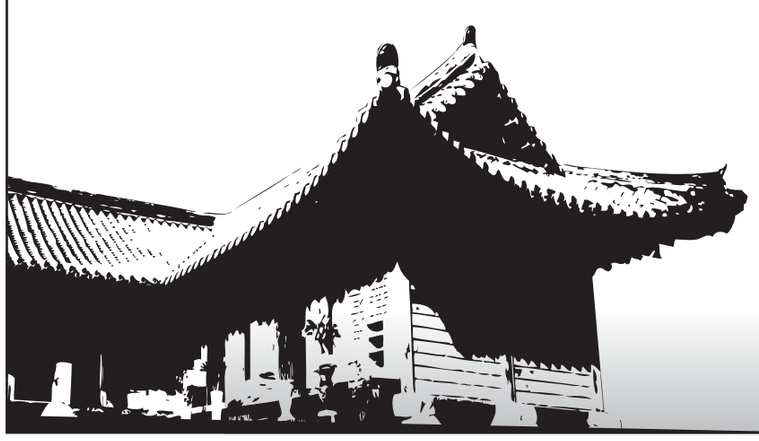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